# “내 업무에 AI 어떻게 적용될까… 미래 사회 엿본 시간”

**뉴테크포럼 참가자 이구동성**
**“매년 참가… 디지털 전망 감사”**
**“일상에 스며든 인공지능, 실감”**

조풍연 한국SW/ICT 총연합회장이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0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가 주최한 ‘제5회 뉴테크놀로지포럼’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상황 속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현장에 방문하는 등 AI에 대한 메트로신문 독자의 열기가 느껴진 행사였다.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김상훈 독자는 “2017년부터 메트로신문의 뉴테크포럼에 매년 참가했다”며 “메트로신문이 학계와 업계, 재계를 망라한 강연자를 초대해 매년 디지털에 대한 전망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I와 바이오 기술 등에 대한 큰 선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 속 많은 부분에 AI가 활용되고 있는데 부동산 영역에서도 단순 거래에 AI가 쓰이기도 하지만 여러 시설 운영에도 도입되고 있다”며 “전문가의 생각과 미래 전망에 대한 메시지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는 강강훈 독자는 “반도체 회사에 다니는데 AI와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공부하는 차원에서 왔다”며 “작년에도 메트로신문 포럼에 왔었고,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일상에 다가왔다는 것이 와닿는다”며 “강연을 듣다 보니 어떤 혁신적 기업이 나오고 있는지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기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차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강연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다룬 게 인상적이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기술 발전이 빠른 만큼 AI 윤리와 관련된 문제도 생각해 보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심현군 독자는 “AI에 대한 흥미가 있어서 공부하던 중 메트로신문 포럼에 참가하게 됐다”며 “많은 강연을 들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접목시켜볼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럼이 끝난 후에는 “옛날부터 AI에 대한 흥미가 있었는데, 몇십년이 지난 후 들어보니 AI 기술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김영롱 독자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례를 보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며 “몇년전까지만 해도 빅데이터나 AI를 어떻게 쓸까 하는 얘기를 했다면 이번 뉴테크포럼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목표, 결국 AI가 도구와 수단인데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지 이야기해준 점이 인상 깊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유동인구와 카드 활용 등 빅데이터를 연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사실 연구는 기초 플랫폼 구축 등 산업과 목표가 다르지만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데 도움이 됐다”고 느낀점을 밝혔다. /김나인·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빅데이터 활용 AI, 경쟁력 중 하나” “AI 활성화 위한 SW교육 강화해야” “데이터 중심 사회로 빠른 이동 필요”

### 축사 이 원 욱 과방위원장

올해로 다섯번째를 맞는 메트로경제의 ‘2020 뉴테크놀로지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전 지구가 멈춰버린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인류의 진보는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 세계에서 ‘코로나19’ 모범사례로 뽑고 있습니다. 위기와 함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가 사회 전반에 진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이 경쟁력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도경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이 AI 시대의 혁신을 이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힘을 보태겠습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축사 조 풍 연 한국SW/ICT 총연합회장

제가 올해 시인 등단을 했는데, 제 이름을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사진과 이름은 ‘조풍연’으로 나오고, 프로필에는 1991년도에 작고한 아동문학 작가의 정보가 나와서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AI가 도시, 교통, 의료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뽑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초중고등학교부터 SW 실용 창의 교육 시간을 늘리고 강화해야겠습니다.

둘째로,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빅데이터, 데이터 바우처 등 데이터 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산업에 걸쳐 개인 데이터 이동권 의무화를 강화하고, 금융산업의 오픈뱅킹과 같이 오픈 API 디지털 이동권을 강화하면 선진 국가처럼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입찰 평가의 공정성 부분을 강화하고, 예산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의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원격의료 사업 분야를 더욱 활성화시켜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서윤 기자

### 개회사 이 장 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메트로미디어와 메트로경제가 뉴테크놀로지 포럼을 개최한 것은 올해가 5번째,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것은 4번째가 됐습니다.

지금 사회는 어떤 이슈든 여야, 진보보수, 세대 담론 등 진영논리에 따라 이분화돼 있습니다. 이럴 때 감정이나 진영논리, 이념 등 정치적 배경을 빼고 빅데이터를 통한 객관적 실체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의사결정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바로 ‘빅데이터를 품은 인공지능’이 펼칠 바람직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회,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져올 긍정적 모습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일반화되는 사회일 것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의사결정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포럼이 그런 데이터 사회로 가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승호 기자 bada@

## “인공지능, 일자리 위협 아닌 창출”

**VIP 티타임 이모저모**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0 뉴테크놀로지 포럼’ 참석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손진영 기자

**◆“AI 아나운서, 모델링 위해 만 여개 문장 읽어야”**

2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메트로신문 ‘제5회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앞서 진행된 VIP 티타임에서는 최근 이슈가 됐던 AI 아나운서 등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 모여. 전창배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KAIEA) 이사장은 “김주하 아나운서의 모델링을 직접 한 것이냐”고 질문. 이에 전석원 머니브레인 이사는 “그렇다.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평균 1만1000개의 문장을 읽어야 한다. 그런 읽는 모습을 촬영해 움직임 등을 데이터화하고 학습시켰다. 처음에는 일주일 가까이 걸렸지만 점점 줄어서 지금은 빠르면 2~3일 정도로도 단축 가능하다”고 밝혀.

**◆“움직임 구현, 감정표현 등 인공지능 아직 어려움 있어”**

전창배 KAIEA 이사장은 “영화배우 등 다양한 분야나 인물에도 인공지능 적용이 가능하냐”고 질문. 이에 전석원 머니브레인 이사는 “아직은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먼저, 움직임을 합성하고 구현하는 것이 어렵다. 두 번째는 감정표현이다. 감정적인 단어가 들어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해.

**◆“인공지능, 일자리 위협 아닌 고용창출 효과 있어”**

전석원 머니브레인 이사는 “인공지는 아나운서는 사실상 전달만 하는 역할이다. 아나운서 한 명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5~6명의 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인공지능을 만들게 되면, 그만큼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 이경전 경희대 교수도 “AI가 일자리를 만든다.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옛날에도 자동차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했었다”고 답해. 이에 전창배 KAIEA 이사장은 “하지만 시간의 문제는 있는 것 같다. 일단 기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맞기 때문.

**◆“인공지능 스피커, 키즈 콘텐츠·독거노인 구조 등 순기능”**

이경전 교수는 “인공지능 스피커에 있어서 새로운 장점을 발견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혀. 이에 정영조 KT 마스터 PM은 “최근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아이들의 대화 패턴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칭찬해, 축하 서비스도 인기”라고 전해. 이에 전창배 KAIEA 이사장은 “인공지능의 또 다른 장점으로 예컨대 기가지니를 독거노인에게 나눠주어, 목숨을 구한 사례가 많다. 복지 차원에서 응급상황시 구조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했다. 이것은 인공지능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 스피커의 역할 강조하기도. /김수지·백지연 기자 sjkim2935@